



Body Basics를 기억하십니까?

성에 대한 솔직 담백 유니버스

- 학관 앞에 섹스북을 과감히 펼쳐 보였던 Body Basics.

고리타분한 생물학 책 속에,

수군거리는 술자리 안에서만 돌고 돌던 알 듯 말 듯한 성에 대한 이야기들.

이를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며

실질적으로 필요한 성에 대한 지식들을 얻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.

여성과 남성, 그리고 성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들.

내년에도 계속됩니다-

14대 총여학생회의 바톤 터치!

성에 대한 문제의식,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고민들.

밥먹는 중에, 수업듣는 중에, 그리고 친구와 수다 떠는 그 순간에.

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여성으로서의 나를 느끼는 고민들은

살아가는 내내 계속됩니다.

많은 사람들이 여성주의를 고민한다고 합니다.

이제 막 시작된 고민들이 이 기간에 그치지 않고

지속적인 활동으로 펼쳐지기를 바랍니다.



나를 움직이는 에너지, 기본중은충돌!



투 ~ 표 ~ 합 ~ 시 ~ 다 ~
올 ~ 랄 ~ 랄 ~ 라 ~



투표일
11월 28·29일
각 단대로비

“이김”경진? “김이”정민? 누구 성을 먼저 쓰는거죠?

부모성 함께 쓰기에서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성, 그 어느 것을 앞에 두어도 상관없습니다.

자기가 듣기에 좋고, 또 남들이 부르기도 좋게 자기가 선택해서 쓰면 되는거죠.

제 14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고 있는

이김경진 · 김이정민 과 함께하는 사람들

선본연락처 cool-energy@hanmail.net





나를 움직이는 에너지,

기분좋은충돌!

차마 따라 웃을 수 없는 농담을 들을 때,
“재 앞에선 농담도 못한다니까”라는 소리가 두려워
입을 다물고 만다.
“여자에게 웃차림이 그게 뭐냐?”
남자나 여자나 꾸미는 건 필요하지..
스스로를 수궁시키려고 노력한다.

일상에서 느끼는 이 답답함.
나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.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.

정말 그렇게 생각하니?

아직 늦지 않았어.

네 안에 공공 숨겨두었던 **에너지**를 드러내봐.

약간만 **용기**를 내면

세상을 즐겁게 살 수 있어.

작은 움직임들이 세상을 바꾸는거야.

자, 이제 움직여봐!

너와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, 기분좋은 충돌!

달리

이제껏 여성으로서 나에게 강요되어온 모습들.
난 다르게 살거야!

총여학생회 정후보

이김경진 (인문 3)

- 여성주의 문화실험 모임 “움” 활동
- 문대 여성주의 모임 “모반” 활동
- 메이데이 “女/聲” 기획단 활동
- 제4회 여성제 “풍류여인” 기획단장



총여학생회 부후보

김이정민 (사과 3)

- 여성자치 언론 “두입술” 활동
- 두입술 5호 「여학우 길찾기」 기획
- 고정희 추모제 “開口우먼” 기획단
- 《여성신문》 대학통신원 활동

이갈

평등하는 뜻의 불어 ‘에갈리테’에서 파생된
이갈리아라는 단어에서 따온 말

나눠 갖자, 들춰보자! - 한달에 한번, 여성주의로 생생한 online & offline 잡지



각자의 위치에서 신나고 살고 있는
친구들의 이야기도 있고
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
함께 나눌 수 있고
단순히 나오는 잡지를 읽는
수동적 독자가 아니라
같이 이야기를 만드는
적극적인 편독자(편집자+독자)

다소 다가가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여성주의에 대한 쉬운 이해와
일상생활에서 여성주의적 감수성을 높이는 방법.

누구나 알고 싶었지만, 알려주지 않았던 제대로 된 성교육과
성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.

그 외에도 내가 만들고 싶고 듣고 싶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.



즐거운 소통의 공간, 여학우 새로 배움터



여성으로서 마주치게 되는 대학생활의 경험.
그 안에서 알게되고, 그 안에서 필요한 정보들.
꼭 알아야 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.

하지만 여자선배와 새내기만 만난다면?
함께 있어 즐거울 그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풀어낼 소통의 공간이 준비됩니다.
홀로 남겨질 뻔한 경험과 느낌들.
그것을 함께 나눌 즐거움이 기다립니다.

反 성폭력, 학교측에 요구하고 이용하자!

- 생색만 내는 성폭력 학칙 두고보지 않겠어!



사건을 접수했으나 피해자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와 접촉할
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이 성폭력 상담실의 태도였습니다. 사건이 접수되었으
나 성폭력 대책위를 열지도 않았으며, 한 학기에 한 번 반드시 열도록 되
어 있는 성폭력 대책위는 2001년 2학기에는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
습니다.

2000년에 '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'이 제정되었는데, 이
학칙대로라면 학내 성폭력 예방과 해결하는 과정이 피해자 중심적으
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.

성폭력 학칙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제멋대로 돌아가는 성폭력 상담실을
변화시킵시다!



학생사회에서 스스로를 소외시키지 맙시다